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대전광역시의회 대전미래연구회(회장 김재경·이하 대미연)는 5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 전문가를 초청,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윤석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송인덕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조합 상무, 이 석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경 회장은 대전시내 13개회사 임금대장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며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무조건

퍼주기식 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미연에서 활동 중인 장문철 의원은 “지금까지 평가도 중요하지만 준비없이 시작된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책임경영 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향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감한 굴곡노선을 탈피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석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시내버스업체들도 재정악화를 탈피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굴곡노선을 과감하게 잡아서 운행하고 시미들이 300~400m 정도만 걸어줘도 훨씬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공공의 개념이 투입됐을 때 서비스의 질 향상이 어려워 질수 있으므로 버스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5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인식 의원이 복지관련 주제로 5분 발언을 할 예정이며, 15일간 시산하 및 교육청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 청원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안전접수 현황으로는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고,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 「관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관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는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289억1,400만원이 제출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5.7%가 증가한 554억1,538만9,000

원이 제출되어 대전광역시의회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이전 대상지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관통 동서대로 터널 및 교량공사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공사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163회 임시회 때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 관련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제168회 정례회 첫 수화통역방송 눈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7월 25일 오전 10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시의원 4명에 대한 시정 질문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첫 수화통역 방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동시 수화통역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전광역시 전문 수화통역사인 이규원씨와 한국농화인대전협회 소속 수화통역사 조영이씨가 직접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별 시정 질

문과 시장 및 교육감의 답변을 통역해 청각장애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2007년 주요업무보고 시 시민 친화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방송을 실시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수화통역 방송을 실시하여 시정질문, 주요 안건 심의시 본회의장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CMB, KBS 등 방송사에 녹화자료 제공 및 방영을 통한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시 실시한 동시 수화통역을 시작으로 청각장애인들이 평소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결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주요행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도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관 시의회의장 로봇랜드 대전 유치 촉구 기자회견 가져



대전시의회(의장 김영관)에서는 8월 16일 오후 2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전략산업의 대표 주자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대전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시 의회 김 남욱 부의장을 비롯한 8인의 시의원과 각 구 의회를 대표해 유성구 임재인 의장과 대덕구 이재현 의장이 자리를 함께 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관 시의회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현재 로봇랜드 대전 유치 촉구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과 면담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일정이 잡히는 대로 시·구의회 대표단과 함께 대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국책 사업 유치를 행정적 차원으로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가 실패되면 충청권 홀대론 또는 소외론 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는 대전시민을 비롯한 모든 단체 등이 하나되는 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이 역할을 대전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 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당초 산업자원부에 총 11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나 최근 울산이 사업계획서를 철회하는 바람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